

경제 어려운데...100만원대 패딩 잘나간다

신세계 9~10월 매출 전년비 85%·일부 브랜드 300% 증가
유통가, 추워진 날씨에 무스탕 등 겨울상품 앞다퉈 진열

‘통패딩’에 이어 올해는 ‘프리미엄 패딩’의 인기가 가을 초입부터 심상치 않다. 유통가는 앞다퉈 겨울 의류로 진열대를 새단장하고 있다. 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전점의 9월1일~10월7일 ‘프리미엄 패딩’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했다. 일부 인기 브랜드는 300%에 달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프리미엄 패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로, 해외 브랜드가 상당수다. 한국인 체형에 잘 맞는 크기(스몰~미디엄)의 경우 물량이 한정돼 있어 신상품이 출시되는 9월 초부터 고객이 몰리고 있다. 김영섭 신세계백화점 해외잡화담당 상무는 “최근 몇 년간 전곡을 강타했던 통패딩 열풍이 2~3년이라는 단기간에 그치자 고객들이 유행을 타지않는 프리미엄 패딩으로 다시금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프리미엄 패딩의 경우 방한은 물론 패션 아이템으로 더욱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파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무스너클’ ‘파라점퍼스’ ‘노비스’ ‘몽클레어’ 등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겨울 의류 고객 잡기에 나섰다. 인기 브랜드 ‘무스너클’은 160만원대의 상품을 신세계백화점에서 단독으로 선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무스너클’과 ‘파라점퍼스’ 임시 매장(팝업스토어)을 내년 1월까지 2층 매장에서 운영한다. 올 겨울 의류의 또 다른 특징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롱패딩이 사라지고 ‘숏패딩’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북고 열풍에 힘입어 2000년대 중·고등학생 ‘교복’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숏패딩이 다시 인기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옥션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숏패딩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G마켓도 지난달까지 2개월간 숏패딩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9% 급증했다고 전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온라인 패션스토어 무신사에서 숏패딩이 겨울용 아우터 부문에서 인기순위 1~5위에 다수 포진돼 있다. 롯데백화점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친환경 소재로 만든 ‘리버시블 무스탕’ 4종을 10일 출시한다. 이 제품은 2017년 3000장을 완판한 ‘평창 롱패딩’, 지난해 2천장을 다 판 ‘몽 무스탕’에 이어 1년간 사전 기획을 통해 준비한 것이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높은 친환경 소재인 ‘에코파’를 사용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을 초입부터 지역 대형 유통매장에는 ‘프리미엄 패딩’을 사려는 소비자가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통큰 김치통을 반값에”

롯데마트, 기획 상품 선보여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전국 롯데마트는 김장철을 앞두고 7.5L 짜리 국산 스테인리스 김치통을 1만9900원에 파는 ‘통큰 김치통’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통큰 김치통’이 오프라인 정상 판매 상품보다 50% 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 김치통은 시중에 팔리는 대부분의 김치 냉장고에 수납이 가능하고, 배수 3~4포기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다. 이 제품은 롯데마트가 이달 진행하는 대형 할인행사 ‘통큰 한달’을 맞아 내놓는 첫 번째 기획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또 16일까지 독일 정통맥주인 ‘L바이젠’ 맥주 12캔(330ml)을 9900원에 판매한다. 독일 웨딩어사가 만든 ‘L맥주’는 2013년 국내에 선보인 이후 지난 7년간 3000만캔 이상 판매됐다. 행사기간 동안 1캔당 825원 폴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호남 최초 ‘골든구스’ 매장 오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호남에서는 최초로 이탈리아 브랜드 ‘골든구스’ 매장이 최근 2층에 문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텀블러를 증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당일 100만원 이상 사면 양말 또는 스카프를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농협 브랜드상품 42% 수입 원료 사용

취급액 연간 2600억원

‘신토불이’를 주창해온 농협이 정작 자체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는 브랜드상품(PB)의 원료 절반가량을 수입산 농수축산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해마다 늘어 연간 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브랜드상품(PB)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42.2%인 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됐다. 농협은 현재 NH 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 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48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을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쇠고기, 감자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칼국수와 찜장, 사골부대찌개 등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4년 2234억원에서 2018년 271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서삼석 의원은 “밀려드는 외국산 농수축산물로 농업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농협 브랜드상품이 활개를 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입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30세대 겨냥 화장품·패션 매장 리뉴얼

이마트 광주점, 연중 완료

숍인숍 유치 등 차별화 중점

이마트 광주점이 연말까지 2차 리뉴얼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06년 개장한 이마트 광주점은 지난 8월 13일 만에 식품·전자제품 매장을 개설했으며 1차 리뉴얼을 마쳤다. 이마트 광주점에 따르면 1차 리뉴얼을 마친 8월29일부터 9월25일까지 한 달 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30만명이 매장을 찾았고 15만5000명이 구매를 했다. 이마트는 총 100여 종의 식품으로 매대를 채우고 새로 마련한 ‘식품·델리 서비스 매장’에는 도시락 식당 ‘오색 밥상’과 중화요리, 유부초밥, 말이김밥 전문점 등을 유치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식품·델리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2층 가전 매장의 경우 건조기(152.1%↑), 안마의자(137.3%↑), 50인치 이상 TV(47.7%↑) 등 프리미엄 가전 매출이 45.2% 증가했다. 이마트 광주점은 달라진 소비패턴과 트렌드에 발맞춰 2차 리뉴얼을 연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30세대들의 패션트렌드와 취미에 맞는 브랜드, 화장품, 액세서리 등 ‘숍인숍’(shop in shop)을 유치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매장 차별화 등으로 점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리뉴얼을 통해 2030 젊은세대와 가족단위 고객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며 “고급화된 매장 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들이 계속 찾고 싶은 지역 내 최고 쇼핑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초당 2.78개씩 팔리는 ‘이마트 초밥’

연내 ‘1억개 판매’ 눈앞

이마트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초밥이 1~9월 6500만개가 팔려 연내 1억개 판매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 초밥은 냉동이 아닌 생 횡감을 사용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다. 이에 2015년 초밥 전체 매출의 10% 수준이던 프리미엄 초밥 비중은 올해 45%까지 크게 올랐다.

특히 연어 초밥 비중은 같은 기간 15~20%에서 34% 이상으로 경종 뛰었다. 이마트는 “유튜브와 SNS에는 이마트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아이템으로 초밥이 거론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며 “1초에 2.78개씩 팔려나가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마트는 주력 상품인 ‘프리미엄 생연어 초밥’ 외에도 10개짜리 ‘연어 데리야끼 초밥’을 10일부터 판매한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첨가물
무색소
무설탕
무지방